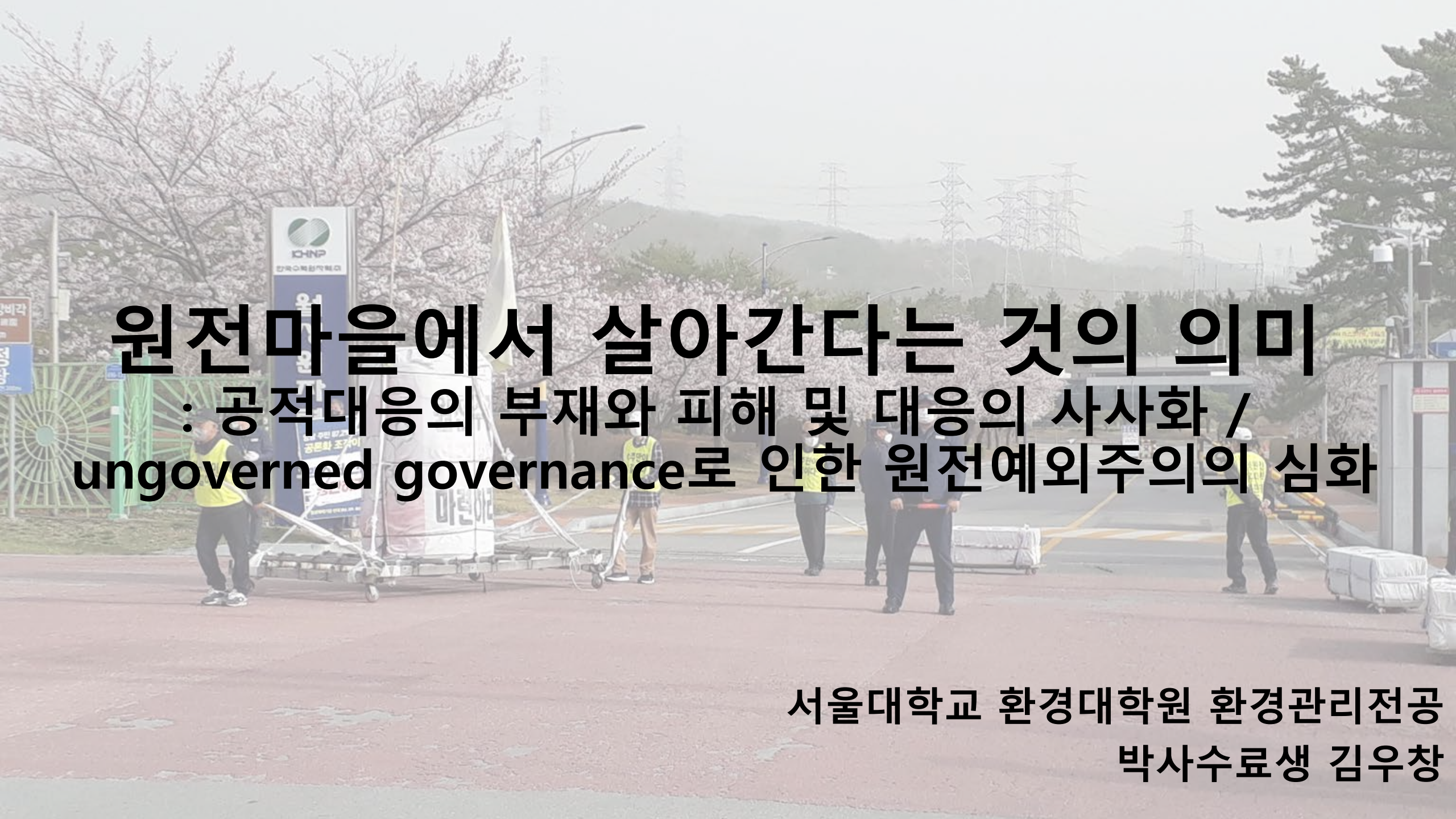


원전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 공적대응의 부재와 피해 및 대응의 사사화 / ungoverned governance로 인한 원전예외주의의 심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박사수료생 김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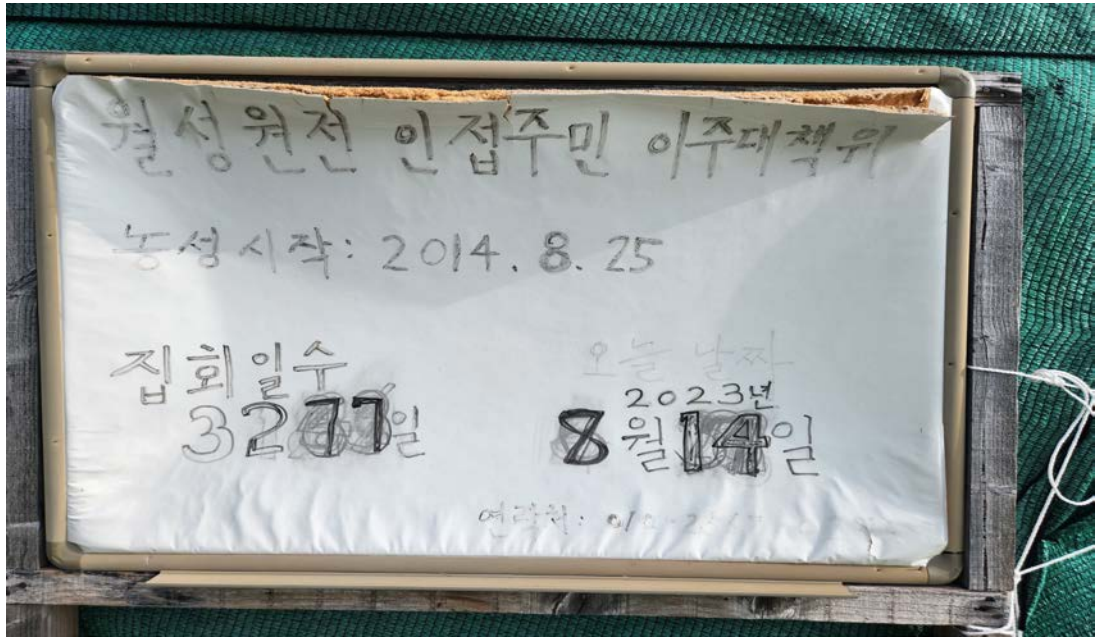
들어가며. 나는 왜 월성에서 연구했는가?

1.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 마치 질적연구와 동의어**로 쓰이며, 시간/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의 현장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심층면담**은 현장연구(Fieldwork)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적음. 또한, 심층면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와의 라포(Rapport)과 중요**함. 연구질문과 관련한 **맥락을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하고 있어야, 말그대로 **심층/깊은 질문과 대답**을 얻을 수 있음(이현정, 질적연구특강 강의록, 2020)

2. **심층면담/인터뷰에 의존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핵발전소, 주변 지역 혹은 주민 연구들의 결론은 보통 그 **지역이 '지원금', '돈', '핵발전소'에 의존**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정치경제학적으로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특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왜, 어떻게 돈/지원금/핵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 함**. 나아가, **한수원의 통치방식이나 원전지원금 역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도/특징/금액이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대도시/수도권의 시각(혹은 인터뷰 위주의 연구)이 아닌 **지역/현장/주민의 시각에서 핵발전소를 생각하는 현장연구가 중요**함.

-> 피상적, 추상적인 원전연구의 한계를 극복 & 원전이 야기한 갈등/이분법적인 구도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원전마을/원전주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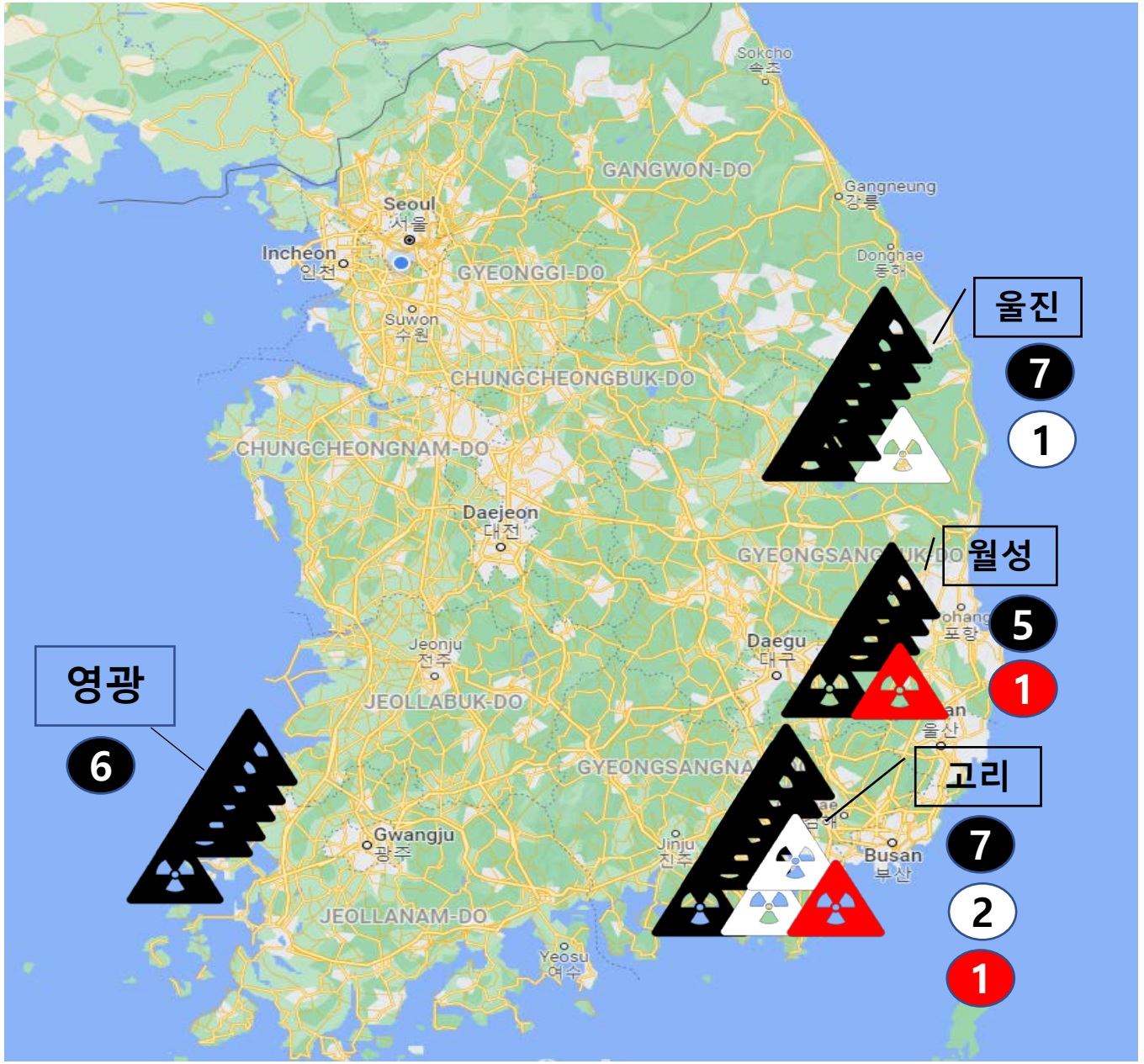
들어가며. 나는 무엇을 월성에서 연구했는가?



들어가며. 나는 무엇을 월성에서 연구했는가?

핵발전소 (2023년 8월 기준)

- 25 가동 중
- 3 건설 중
- 2 영구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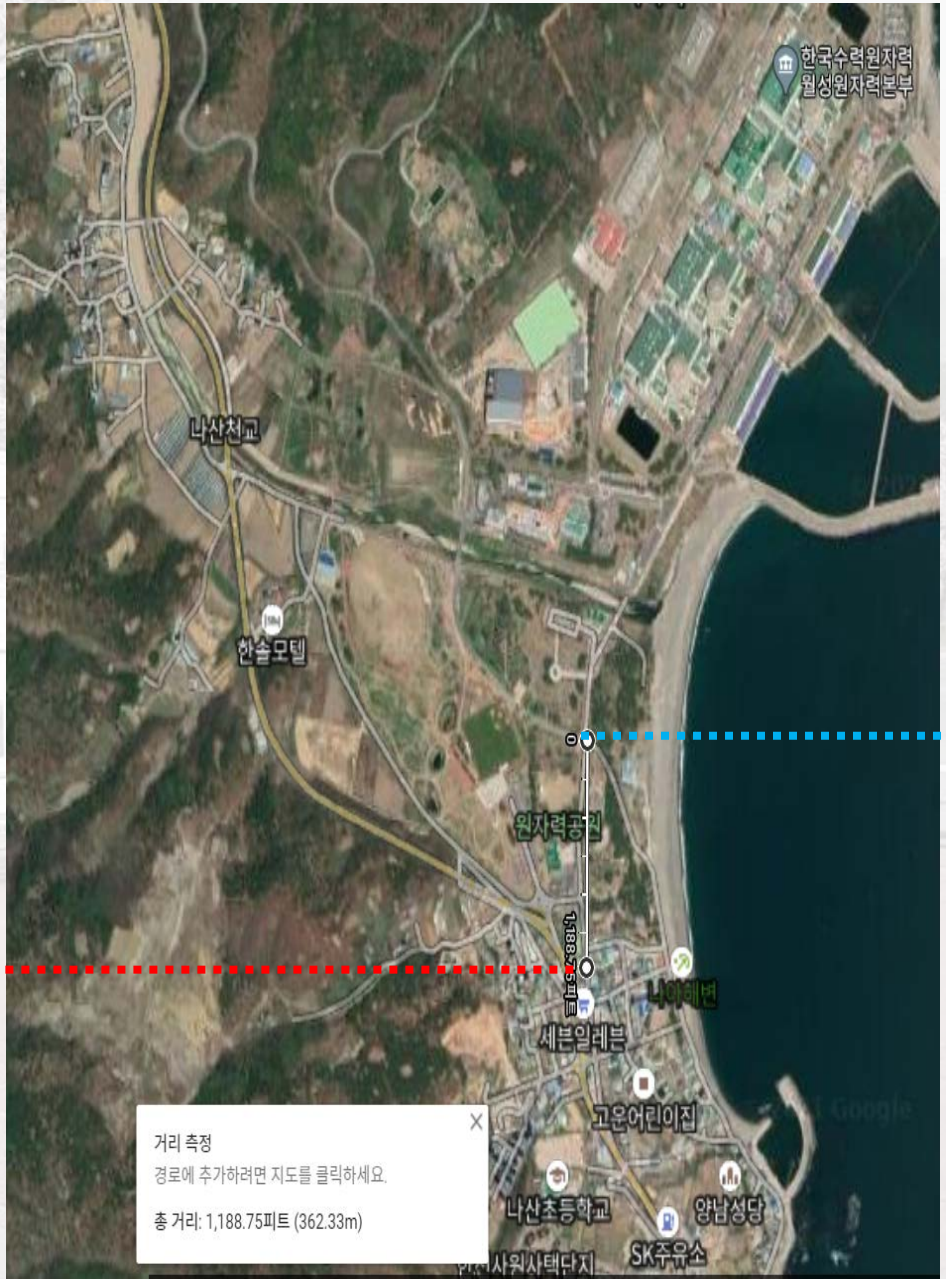


들어가며. 나는 무엇을 월성에서 연구했는가?

연구방법: 문화기술지(Ethnography), 구술생애사(Oral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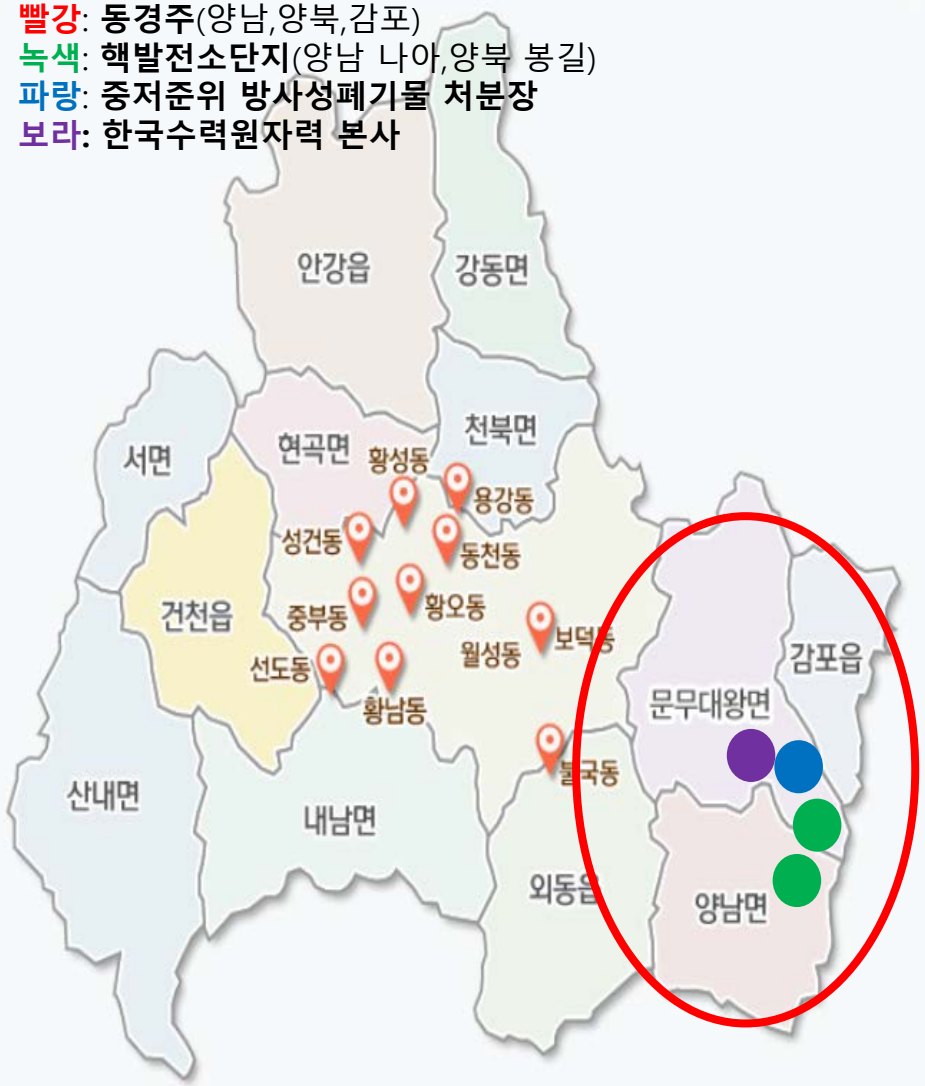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장기간 머물**면서 지역주민들과 **라포(관계)**를 형성하며 이들을 **참여관찰 및 분석**하는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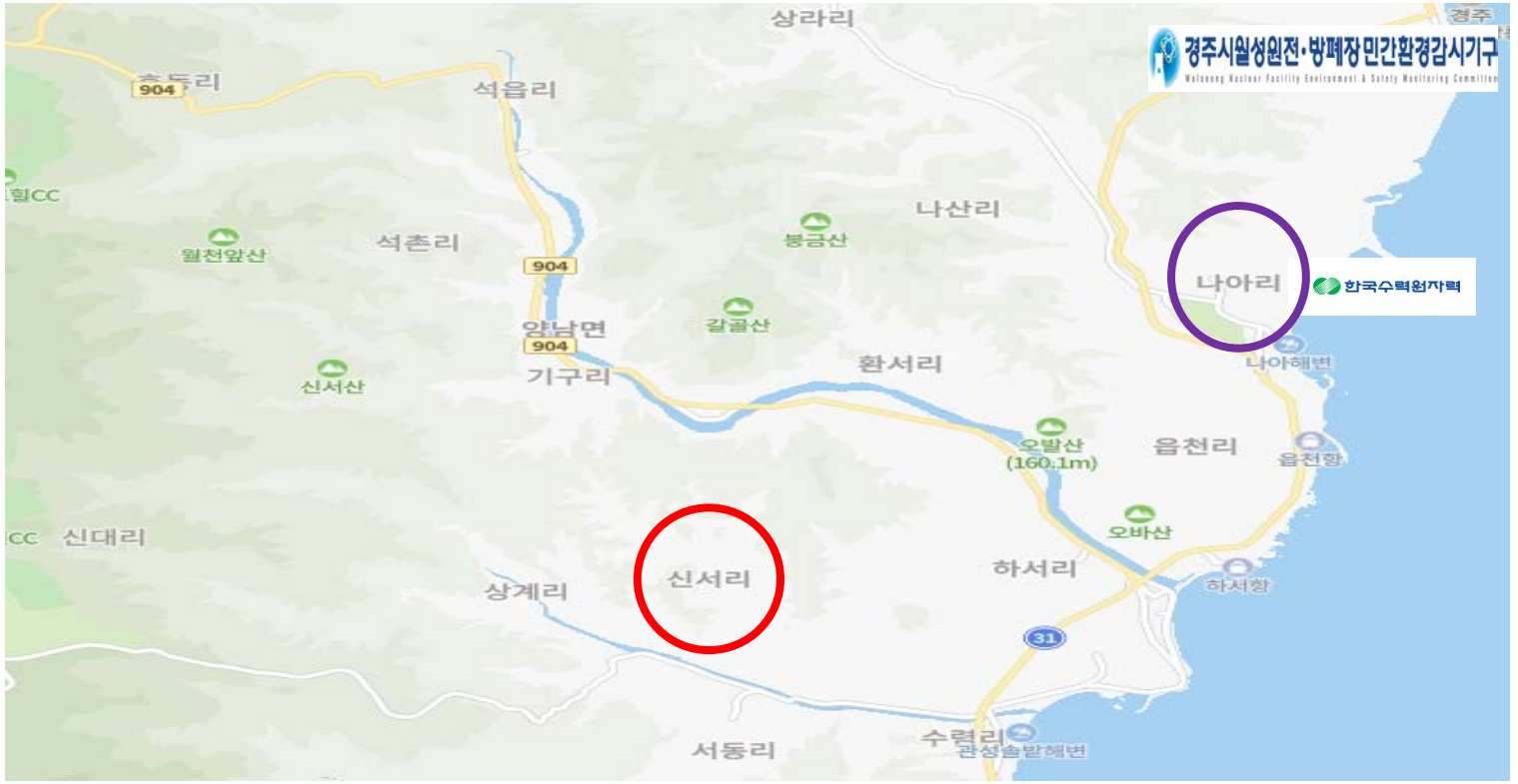
-특정한 집단의 **삶이나 문화를 생생하게 묘사**, 현재 직면한 이슈에 대해 한 집단이 **대응/인식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적합.



들어가며. 나는 무엇을 월성에서 연구했는가?

빨강: **동경주**(양남,양북,감포)
녹색: **핵발전소단지**(양남 나아,양북 봉길)
파랑: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보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 **현장연구: 양남면 신서리(월성 핵발전소에서 3-4km 떨어진 마을)에서 2020년 10월 중순부터 2021년 7월 초까지 약 8개월 현장연구를 진행.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들과 라포를 쌓으며 자료를 확보함.**
2.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 상여시위에 참여하여 이주대책위, 울산북구 연대자, 경주시내 연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투쟁/싸움의 의미'를 이해(3월, 농사일이 바빠지는 시기부턴 매주 월요일 1회로 변경)**

(구상 중인 박사논문의 연구질문 및 본문)

1. 지난 30-40년간 원전이 가동, 운영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와 영향, 갈등이 공적영역에서 공공의 의제/문제로 다루어 지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었는지

-외부화, 사사화, 느린 폭력(& 통치성, 거버넌스)

2. '공적대응의 부재와 피해와 영향의 사사화(및 보상위주의 해결방식)'라는 ungoverned governance는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통치성, ungoverned governance, 원전예외주의(exceptionalism), 내부식민지

-'보상과 원전지원금'이 문제해결방식의 핵심이 된 과정(발주법/원전지원금 관련 조례 변화)

3. 공적대응의 부재와 개인에게 전가된 피해 및 영향에 원전마을 및 원전주민들은 어떻게 대응, 적응해왔는지? (오늘 발표 내용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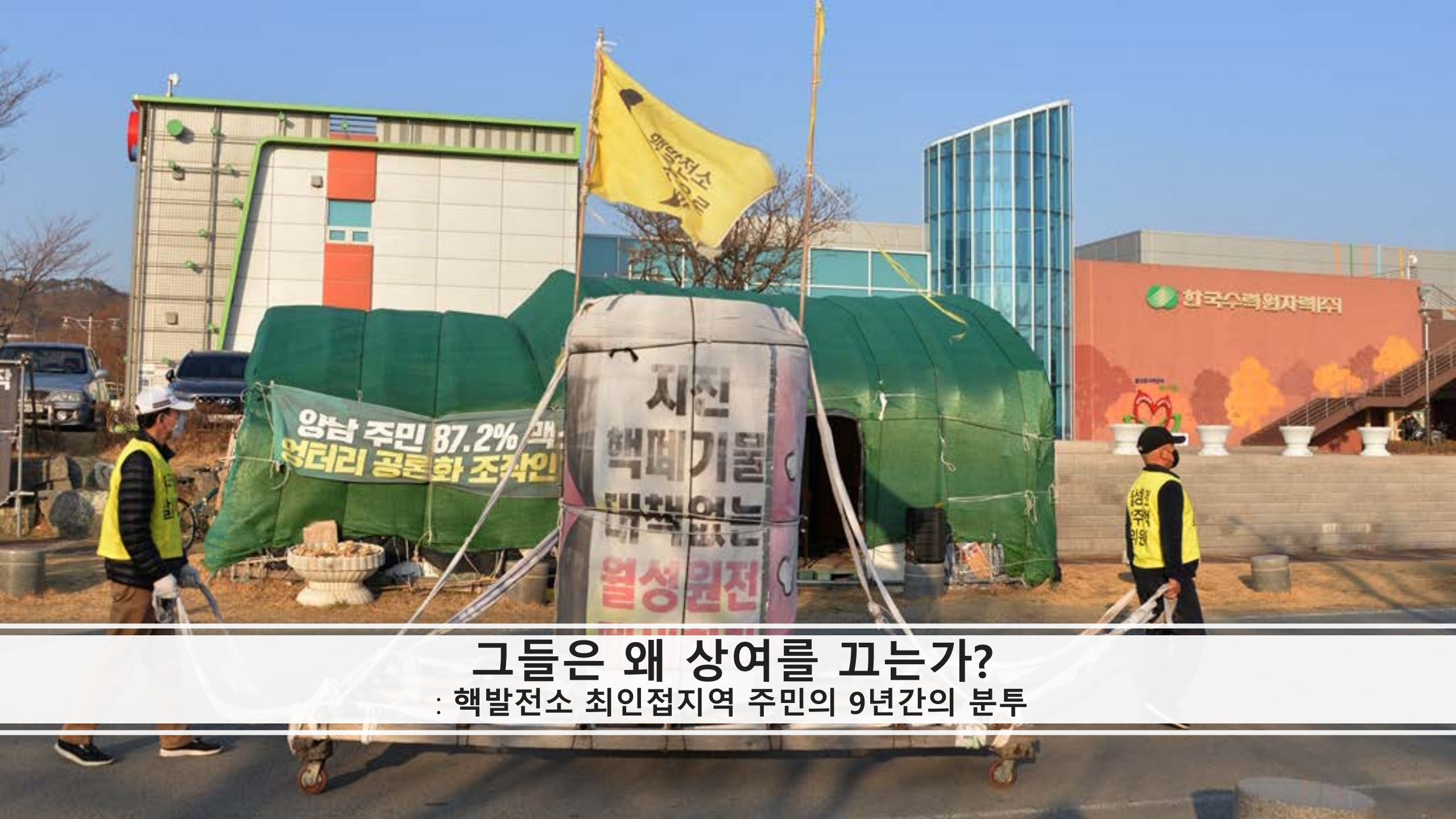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구도'와 '경제중심적 설명(위험과 편익을 거래/교환한다)' 모두를 극복하고, '상여시위'를 하는 주민, 원전이슈에 무관심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한수원/원전을 비호하고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를 비판하는 주민들까지...

-'연구자의 (연구)현장'으로서가 아닌 '주민들의 삶/일상이라는 공간'으로서 원전마을 이해하기

-비가시화된 문제를 가시화하려는 사람들, 그러나 비판을 못 하는(CAN'T) 사회에서 안 하는(DON'T) 사회로 진행 중...

4. 결국, 원전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공적대응의 부재, 개인에게 전가된 피해와 영향. 30-40년 이러한 방식의 ungoverned governance에 적응/대응해온 원전주민들과 '끝없이 팽창/확대'하여 결국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내부식민지가 되어가는 중(원전예외주의)



그들은 왜 상여를 끄는가?

: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9년간의 분투

1. 흔들리는 핵발전소 '안전신화'와 주민들의 이주대책위 결성

법정동(리)명	세대수(인구수)
양남면 총	**3,443(6,281)**
하서리	**600(1,046)**
수렴리	260(279)
신서리	152(275)
서동리	67(128)
효동리	183(277)
상계리	121(213)
신대리	198(352)
읍천리	**746(1,533)**
석촌리	115(203)
석읍리	83(136)
기구리	77(127)
환서리	169(295)
상라리	64(116)
나산리	**206(384)**
나아리	**402(717)**

마을 특징(나아리)

1. **직업구성**: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의 절반은 원주민 혹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집 소유)이고 절반은 최근에 이사 온 주민(세입자)이며, 그들은 보통 **식당**을 하거나 **월성원전 직원(정규직, 비정규직)**임. 즉, 나아리 주민 중 상당수가 핵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직업.

2. **핵발전소에 의한 고용, 마을발전 체감의 변화**
"과거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호미, 대야를 갖고 흙과 돌을 파가지고 나르는 등 터파기 작업**"을 하였고, "**'오지'로 파견된 직원들은 마을내에서 먹고,자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경제성장, 마을발전을 느낄 수 있었음. 그러나 **과거 10년에 핵발전소 1기**를 지었다면, **현재는 5년 안**에 짓고, **직원들도 근처 도시(경주시, 울산, 포항)에서 통근**을 하면서 주민들은 지역상권이 침체된다고 느낌.

성함(직함)	인터뷰 시간 및 장소	마을
김진선(이주대책위 회원)	2/9(자택), 3/26(자택)	나산리
김진일(이주대책위 위원장)	3/15(자택)	나산리
성혜중(이주대책위 회원)	4/6(자택)	나아리
황분희(이주대책위 부위원장)	2/2, 2/9, 3/9, 3/25(자택)	나아리

1. 흔들리는 핵발전소 '안전신화'와 주민들의 이주대책위 결성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신뢰가 높았고,
한수원의 안전신화가 굳게 형성된 시기

2011

후쿠시마 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환상이 깨짐.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구나",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 방사능 누출/삼중수소/중수로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알게 됨: "기자가 한 번은 그러는 거야.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매일 액체/기체의 상태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나온다고."

2012
2013

짝퉁/위조 부품 등 납품비리: "이렇게 위험한 원전에다가 짝퉁 부품을 쓰나, 하면서 저거 더는 믿을 수 없다. 못 살겠다. 이주시켜달라, 이러면 안된다."

2014년 8월 25일

나아리, 나산리 주민 72가구가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천막농성 돌입

(현재, 나아리 402세대, 나산리 206세대. 30만원의 가입비와 월 3만원의 회비를 통해 천막/상여시위 등을 유지)

2. 이주대책위를 방해하는 세력과 상여시위 시작

: 處士 局長 之 柩,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삶...

2. 이주대책위를 방해하는 세력과 상여시위 시작

: 處土 局長 之 柩,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삶...

"길 양쪽에 서서 피켓시위를 했어. 그땐 사람들이 많으니 매일 나왔어. 출근시간에 30-40명 나와서 하니까. 근데 자기들도 골치가 아프니까 2차적으로 공작을 또 하더라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사위가 있다, 하청에서 일한다, 직접 장사, 식당 한다 뭐. 원전에서 뒷조사를 다 해서 지시를 하니까 2년도 안 돼서 반 이상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끼리 더 강하게 나가자고 해서 관을 끌자는 얘기가 처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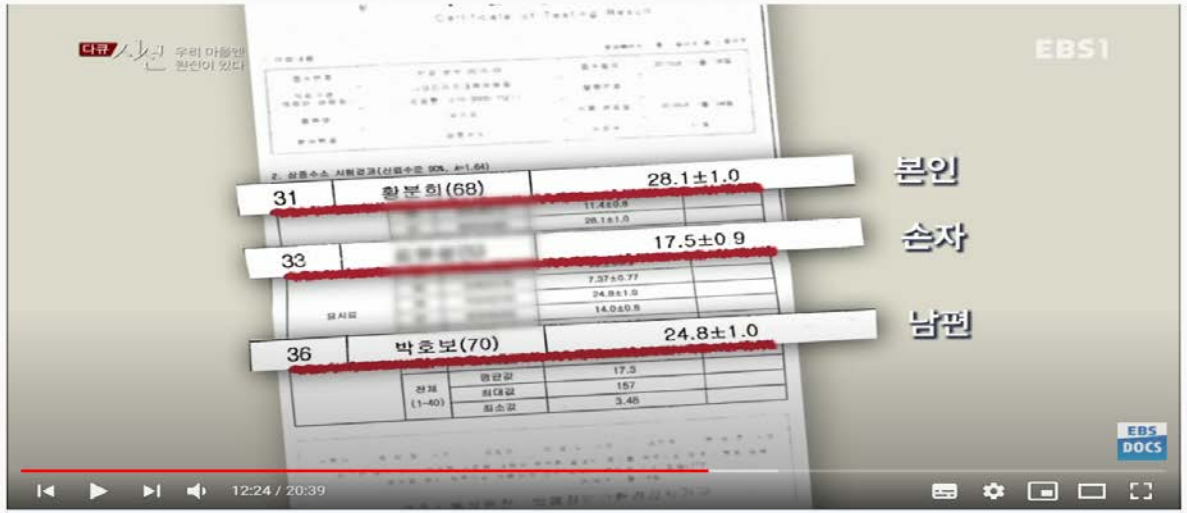
관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장 등의 직함을 써서, 각자 자기 관을 끌었다. 처음엔 상여복도 입고, 상여곡을 튼 채로 했다. "이미 핵발전소 옆에서 사는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삶이잖아, 죽음 앞에 선 느낌이었지."

-> 죽은 앞에 선 이주대책위의 울분을 표출하고, 이주를 강하게 요청. 나아가 상여 위에 핵발전소 모형을 실음으로써 '핵발전소에 대한 장례'를 매주 치르게 된 것.

3. 삼중수소 검사 결과의 분노와 충격
: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2016년 1월 21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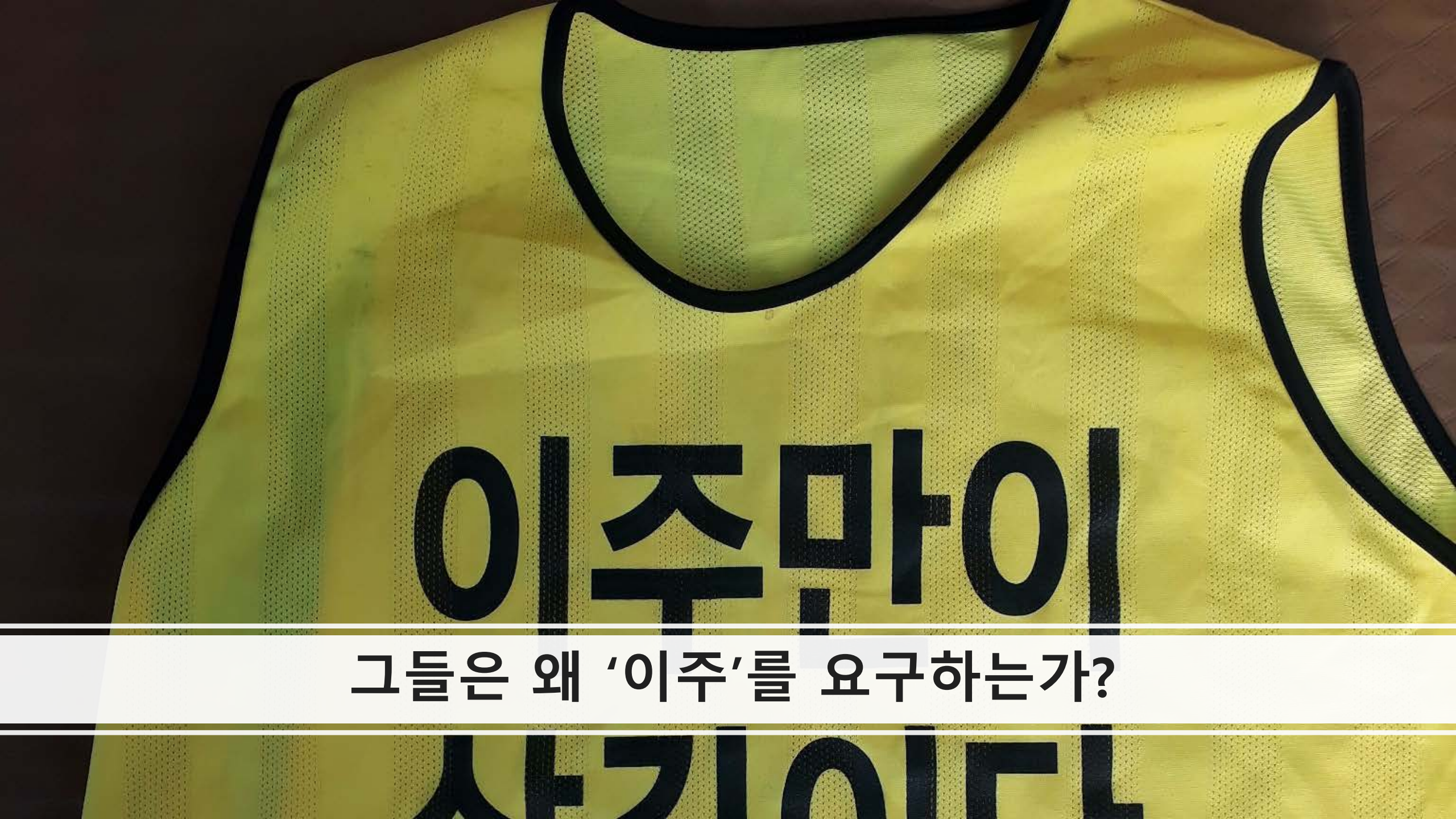
우리 5살 난 손자 몸에서... 애들 몸속에서 말이야. 어른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방사능) 수치가...
그러면 당장 그 애가 이상이 없어도 걔가 성장해서 20대, 30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원자력 발전소 옆에 애를 데리고 산다는 내 책임이야.
(EBS, 다큐 시선-우리 마을엔 원전이 있다 중)



- **2016** — 2016.1 월성원전 인접주민 삼중수소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 검출**
- **2015** — 황분희 씨 등 원전지역주민 618명 갑상선암 공동소송
- **2014** — 2014.10. 균도네 가족, 한수원 상대로 소송. 균도 어머니 갑상선암 일부 소송(1심)
- **2014** — 이주대책위 결성
- **2012** — 황분희씨 **갑상선암 확진, 수술(남편, 갑상선항진증)**
- **2011** — 2011.3.21. 손자 태어남.
- **2007** — 황분희, 큰 딸 부부에게 "같이 살자...손주들 키워줄게"권유에 이사. 손녀딸 3살.
- **1986** — **황분희, 박호보 부부, 경북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 이주**

3. 삼중수소 검사결과의 분노와 충격
: 불안한 게, 불안한 것이 적중을 한 거야. 내 희망이...

그러면 내가 키워줄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느라. 집에 들어오면은 울산까지 출퇴근하는게 한 20~30분 밖에 안 걸리거든. **그럼 내가 키워줄게. 그래서 들어온거야.** 우리 XX는 여기서 임신해갖고 놓은 거지. (...)
아마 그때 내가 애를 봐준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야 뭐 어쨌든간에 할 건데 싶은데. (...) **후쿠시마날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게.** 그 불안한게 참 지금은 딱 그 말이, **불안한 것이 적중을 한 거야.** (...) 지금은 나가라고 하면은 안 나가. 왜그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놔두고, 위험하다면 다 같이 나가야되지 왜 그 하냐고.** (...) 걱정 없이 애를 키웠지. **그 희망이, 아 내 손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생각도. 머리가 뭐 돌로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야.** (...)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내가 지금은 전보다 많이 무뎌진거지. 처음같이 그러면 정말 못 살거야. **그래도 늘 불안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애들 놀다가 **코피가 좀 나도 왜 저렇게 코피가 나지, 자꾸 걱정이 되고.**



그들은 왜 '이주'를 요구하는가?

탈핵을 요구하는 울산북구와 이주를 요구하는 월성이주대책위

<연구하게 된 계기>

1.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혹은 '그들은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우리는 탈핵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 " 라는 단호**한 대답: 그럼 그들은 (탈핵/반핵이 아니라면) **무슨 활동을,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2. 울산북구 주민들이 **'탈핵', '월성 2,3,4호기 조기폐쇄' 조끼(2021.6.21)**를 입고오면, **이주대책위는 이를 불편**하게 여기며 **"이곳에선 조끼를 벗고, 이주만 요구하라"고 요구**. 즉, 연구자의 **편견**이 깨지고, 그들 사이 **'협력 속 긴장'의 순간**을 통해 **'이주'대책위가 '탈핵'이 아니라 '이주'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게 된 계기**를 분석하게 됨.

1. 생계와 피폭문제 사이: 주민들에게 전가된 피해와 낙인들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은 한수원/핵발전소에 **<u>경제사회적으로 의존</u>**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주민 직업의 대부분은 자영업(식당)과 핵발전소 관련 업무(정규,비정규직,하청/재하청 등)이기에 한수원을 비판하는 순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올라 **<u>직/간접적인 피해</u>**를 보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주대책위는 **<u>"생계문제와 건강/피폭문제 사이"</u>**에서 후자를 더 우선시함으로써 **<u>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한수원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이주대책을 요구</u>**함. 그러나 이주대책위도 '탈핵'까지는 외치지 못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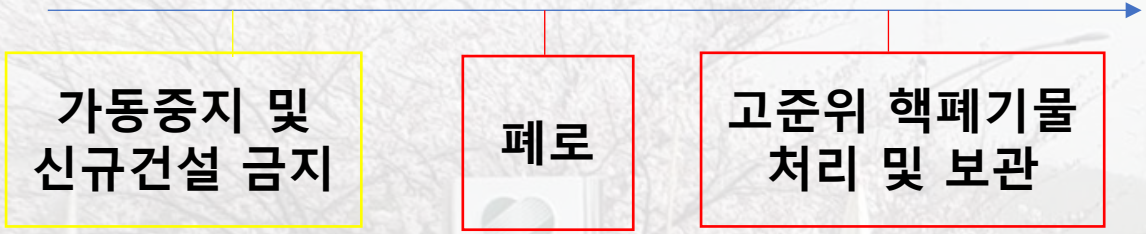
1. 생계와 피폭문제 사이: 주민들에게 전가된 피해와 낙인들

"사실 우리도 **탈핵이나 월성 2,3,4호기 당장이라도 멈추라고 외치고 싶지**. 근데 **우리가 그걸 외치면 여기에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상여시위를 하는데도, 다 우리 탓 이래. 근데 우리가 남은 핵발전소(월성 2,3,4호기)까지 다 멈추라고 해봐... 누가 우릴 **'보호'**하고,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 (3/9 인터뷰)

"만약에 우리가 탈핵이나 월성 2,3,4호기 가동중지를 외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동안 쉬쉬하던 문제까지 딸려오거든. '지역 농수산물 피폭문제나 토양/지역 오염문제'까지..** 그러나 이주문제는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 몸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잖아. 지역 농수산물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고 어민이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피해를 볼텐데**, 너무 어려워...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겠어." (6/30 인터뷰)`

이주대책위가 '**탈핵' 이 아니라 '이주'를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계를 둘러싼 위험경관'**과 관련 **: 주민들이 탈핵이나 월성 2,3,4호기 폐쇄**를 외치면, 원전 관련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 & 탈핵을 외치는 순간 그동안 **'터부(Taboo)'시 되어왔던 '토양 및 농수산물 피폭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은 오로지 **'(오염되고 질병이 있는) 자신의 몸' 만으로도 제기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게 됨.

2. 현실가능성의 부재: 탈핵의 상이한 정의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사회적으로 합의된 **'탈핵'의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사회(통념)의 **협소한 범위의 탈핵**은 **'핵발전소 가동중지 및 신규건설 금지'**임.
그러나 '주민들의 탈핵'은 그 범위를 넘어선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까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현실가능한 기술과 대안이 있는가?"

"서울역 앞에서 서울대 핵공학과 학생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고준위 핵폐기물 대안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주xx 교수에게 연락**해서 꼭 좀 뵙고 싶다고 했거든. 만나서 **대안이 뭐냐고 물으니, '앞으로 해보겠다, 연구할 것이다'라는 말**만 했어. 거짓말을 한 거야. 국내 최고 전문가도 그 말을 하는데, **이주말고 무슨 답이 있냐**는거지" (2/2 인터뷰)

-폐로(경수로-부산, 중수로-경주 나아리) 연구소도 현재 지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폐로-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이 부재한 상황**은 '주민들의 탈핵'개념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여겨짐.
-또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대가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맥스터'가 임시시설인지, 중간시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정부가 이것을 영구저장시설로 만들지는 않을까 불신**하고 있음.
-즉, 이러한 상황(**현실가능성의 부재, 정부/사회의 통념과 주민들의 탈핵 정의의 차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막연한 탈핵'보다 '이주대책'이 더욱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짐.

3. 탈핵운동진영의 거대담론(반핵/탈핵)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들

반핵에서 탈핵으로(윤순진, 2015):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반대'**에서 **비중을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핵발전(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으로 변화

-> **에너지전환, 탈핵(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첫번째 정부의 출현 (의미)** & **단일한 메시지/담론/운동지향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의 목소리들 **(한계)**

탈핵신문(2017) 토론회: **'탈핵운동'의 분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하나의 탈핵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참여자들이 탈핵운동**을 해야함.

김세영 외(201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의미와 한계 토론회: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가 필요**, 탈핵운동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요구들이 공존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했는데, **고정되고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가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맥락을 제거**", "**한 덩어리로 모든 이슈를 받아 안기에는 힘든 상태**가 되었고, **중앙, 수도권 중심의 탈핵운동(진영)이 더 분화되고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음.

"**이주를 시키는 것도 탈핵을 하는 다른 방식**이야. 이것도 큰 성과인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 정부랑 핵마피아를 상대해야 하니까. 근데, 만약 한수원도 탈핵단체, 시민 전체가 최인접주민 이주를 먼저 요구한다면, 그들도 다르게 생각할 거야. 아, 이거부터 해야 겠구나, 근데 제일 골치 아프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는 결국엔 후순위**로 가더라.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핵발전소만 멈추라고 말하는게 무슨 의미**야. 핵발전소가 멈추어도 여전히 위험한 곳인데"(6/30)

-> **'사람'이 빠진 탈핵진영의 '핵발전소 가동중지 위주 목소리'의 한계**를 지적 &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계획적 누출이 야기하는 피폭/건강문제, 이주문제와 재산권 제약' 등 거대담론 '탈핵'이 지적하지 못하는 구체적이고 지역-맥락적인 이야기**를 담은 운동의 필요성, 불가피성

3. 탈핵운동진영의 거대담론(반핵/탈핵)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의 목소리들

탈핵신문(2021년 10월 13일), 왜 '탈핵 비상 ' 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 "핵발전소의 사건사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 배출에서 오는 주민 건강 위험론**, 이 **방사선이 공기나 바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국내 농수산물에 주는 영향이나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 "**갑상선암 공동소송이나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투쟁들은 탈핵운동에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역의 소재**"라고 언급(윤종호).

탈핵운동 내부의 입장차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놓고 탈핵 진영 내부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에, '전환 자체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홍덕화)

장주은,황진태(2021, 재인용): 한국 정부 **스스로 'K-방역"으로 지칭한 성공적인 방역모델**을 통해 강조된 **대문자 K로 상징되는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소문자 k로(대한의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지자체,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 조직과 이들이 형성하는 사회공간적 특성들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와 같이, '탈핵'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정부/탈핵진영/한수원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주민들이 형성하는 위험경관과 최인접지역 월성 이주대책위가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위험경관은 모순되고, 경합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주체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음.

이상헌 외(2014)는 위험경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던 목소리**를 언급. 특히, **객관적 위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그들이 왜 탈핵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왜 탈핵을 요구하지 않는가를 묻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우선될 필요"를 강조**하였음.

-> 즉, 이 연구는 **탈핵이라는 거대담론 속에 배제되어왔던 지역주민들이 왜, 어떻게 자신들만의 위험경관을 만들었는지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그들이 처한 맥락, 상황과 요구들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예외공간으로서의 원전마을에서,
원전없는 삶을 상상하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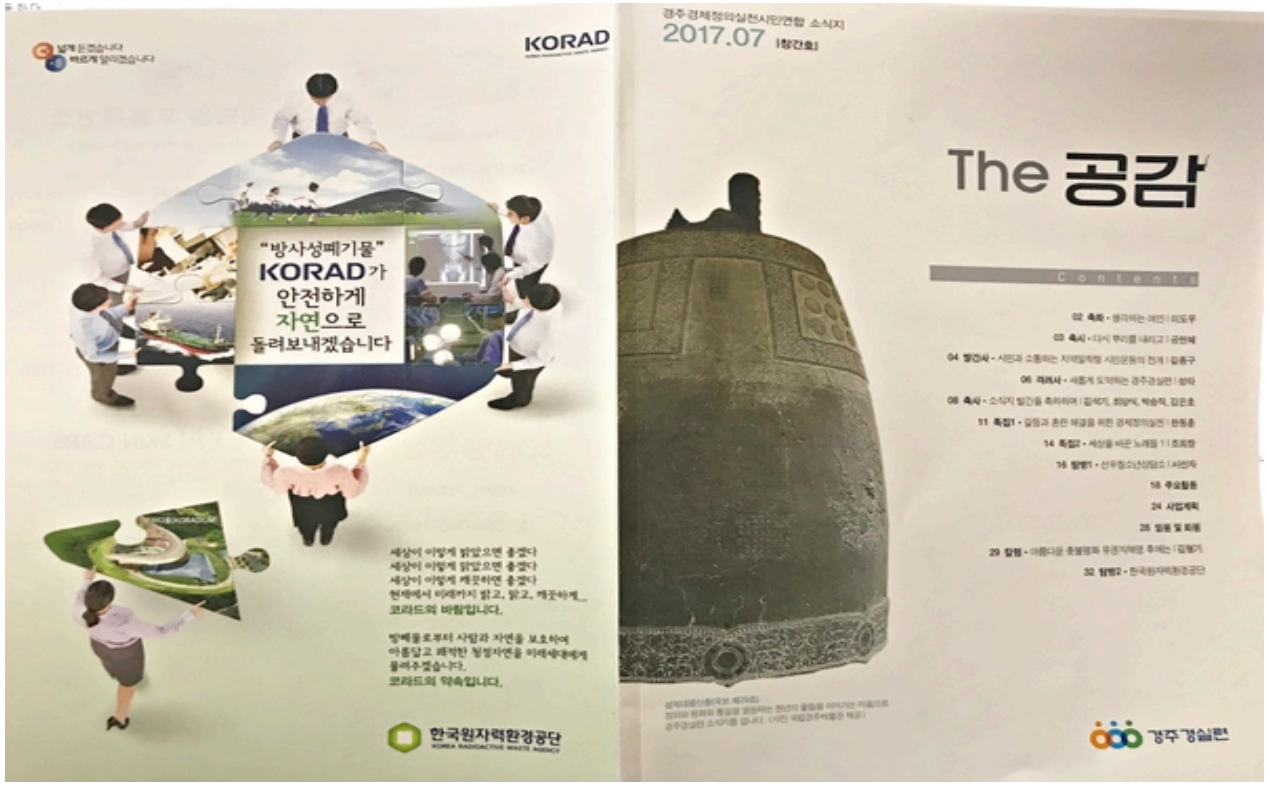
나가며. 비판하지 않는 예외공간으로서의 원전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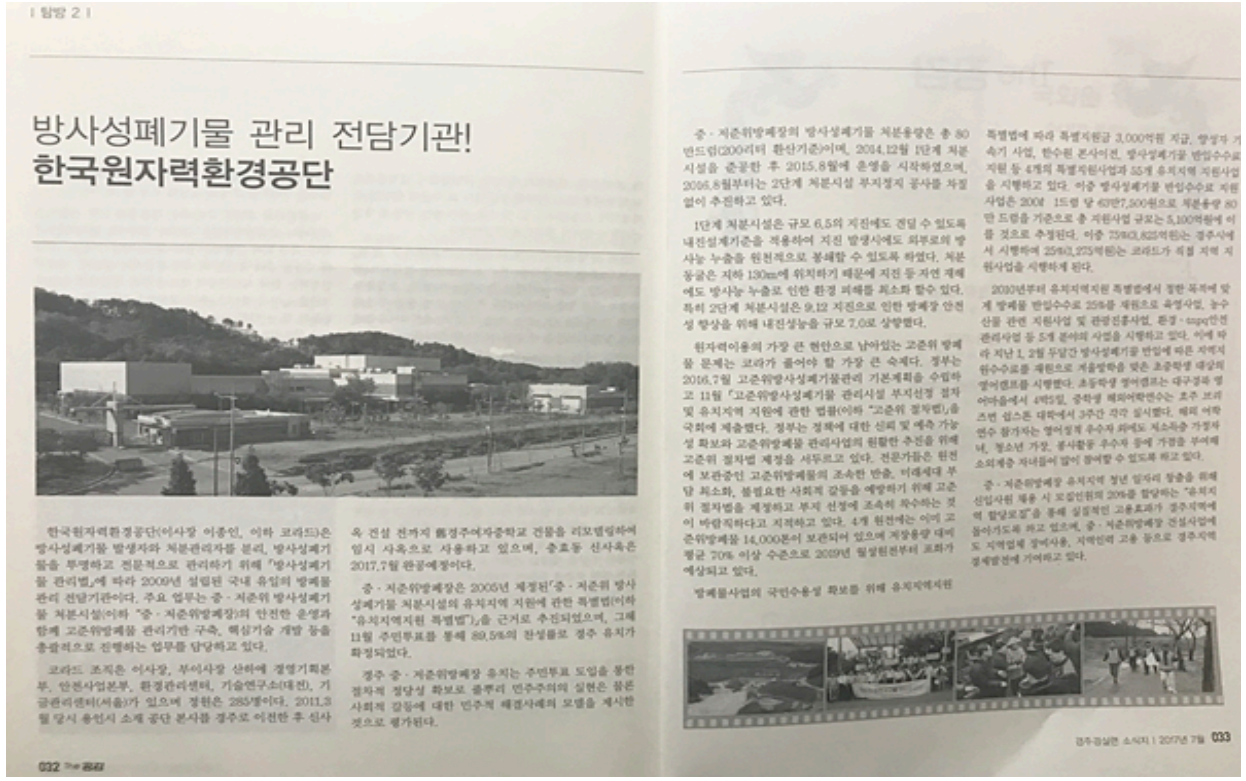
찬핵과 반핵/탈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비정상적인 정치/정쟁구도, 너무도 근대화된 구도) 외에, **다양한 이유, 삶의 맥락과 조건(경제, 생계에 대한 이유)에 의해 핵발전을 바라보는 '다양하고도 상충'된 관점을 파악**하기 시작 &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안에 설치된 월성 한마음공원 포토존 및 바베큐장**' 등 **"위험과 일상, 놀이, 관광이 섞여 있는 일종의 재난자본주의의 형태"를 포착**하게 됨.

-핵발전이 누군가에겐 '**위해, 위험시설**'로 인식돼 오랜 기간 투쟁과 운동의 목적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됨. 이를 통해, 왜 핵발전이 '**탈정치화**'되고 **지역의 문제/경제문제만으로 제한**되어 있는가라는 고민.

-우리와 그들 사이의 **비가시적인, 그러나 너무도 필수적이고 분명한 관계와 연결고리(전기를 소비하는 이곳과 생산하는 저곳)**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고(**외부화된 비용을 어떻게 내부화**, 어떻게 **그들/그곳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이곳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될까)

나가며. 원전마을에 희망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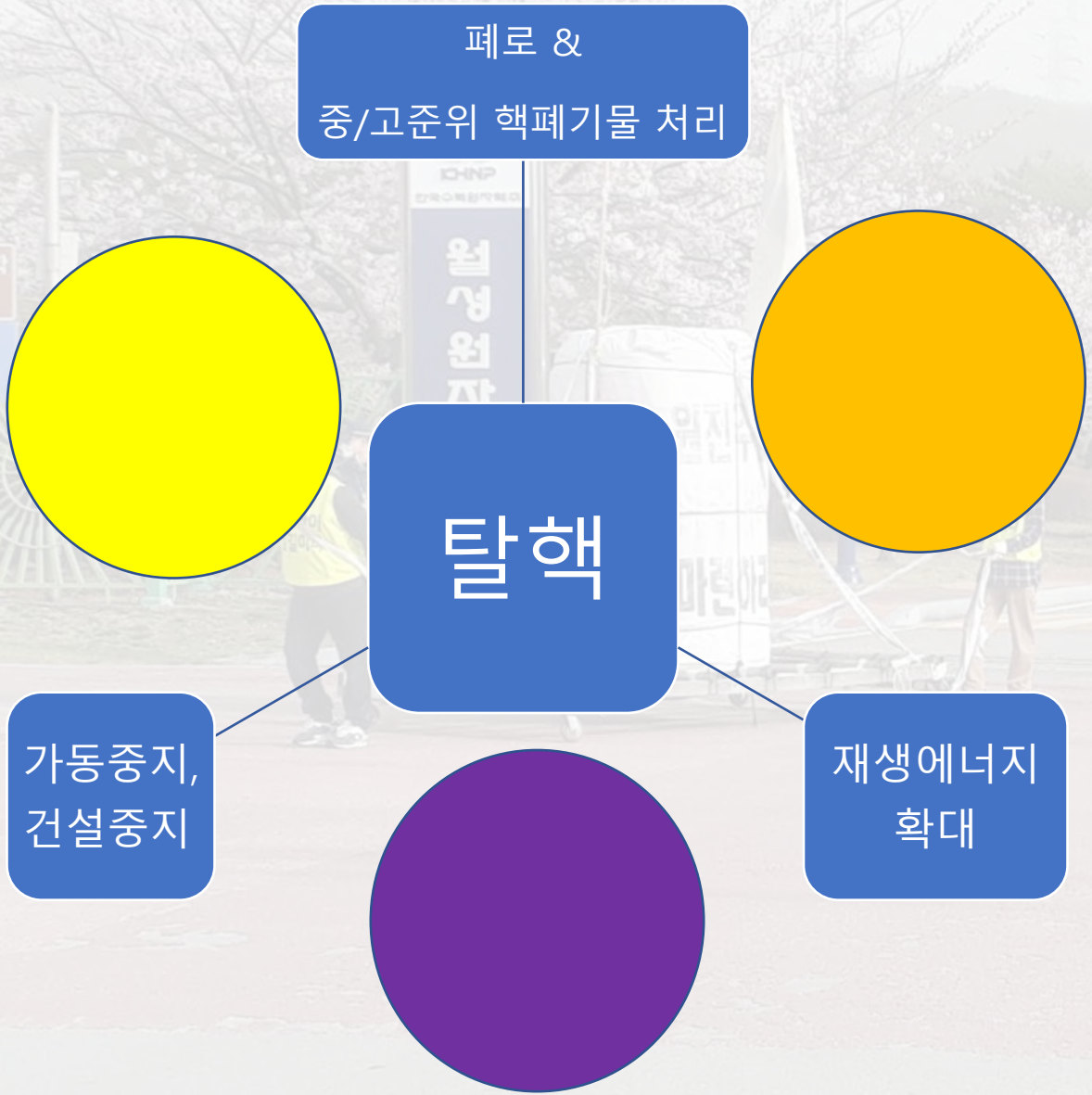




30년 된 경주 경실련. 2017년 6월 격월지 소식지<The 공감>을 창간하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으로부터 홍보비 명복의 후원금 300만원을 받음. "방사성 폐기물 관리전담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제목의 탐방기를 게재했고, 뒷표지에는 공단광고를 게재. 이후, 사고부지로 지정되어 결국 경주 경실련 해체.

경주환경운동연합을 제외하면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 받지 않는 시민단체/시민사회가 없을 정도로 원전/한수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판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짐. 한수원도 한 해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통해 경주지역 언론들에 후원, 광고게재... "비판할 수 없는 사회"에서 '비판(조차)하지 않는' 침묵의 사회/예외공간/한수원 천하가 만들어짐.

나가며. 원전을 둘러싼 고민들



핵발전이라는 이슈를 **'에너지'의 생산, 소비**만으로만 좁혀 소비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 폐로 및 피폭 문제 등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 확대

시간/공간적 범위의 확대와, 비가시적인 연결고리를 가시화하는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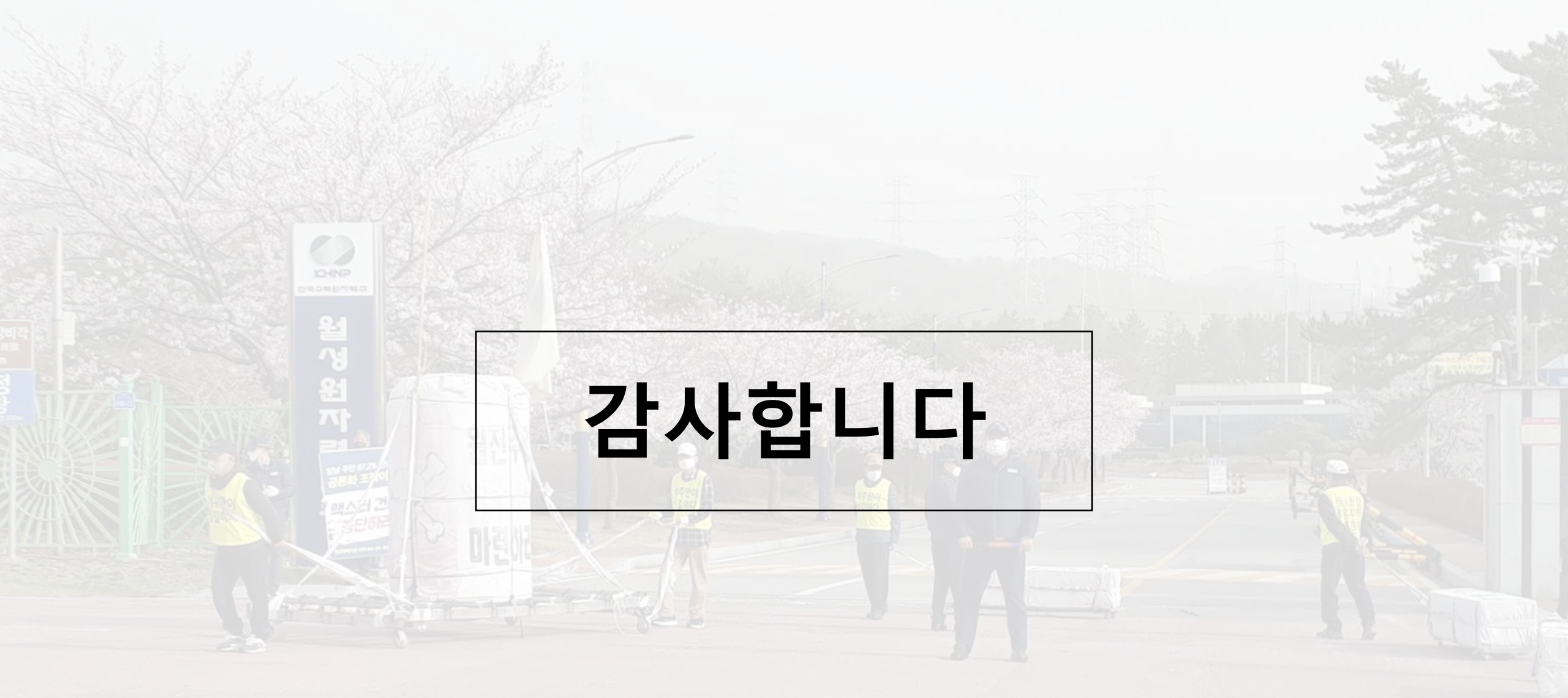
님비는 원전을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원전은 싫지만 전기는 쓰고싶은 우리들을 향해야 하는가

지역에서 "한강에, 강남에, 국회에, 청와대에, 서울에 핵발전소 지어라"는 외침에 귀기울여야

나가며. '핵발전소 없는 삶'에 대한 상상력

세 개의 축 사이사이에, **지역사회와 핵발전이 지난 30~40년간 맺어온 다양한 관계**들, **경제/사회/정치적 영향력과 원전지원금** 등을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채울 수 있어야, 비로소 **지역사회에서도 '핵발전 없는 삶'**을 떠올릴 수 있고, **'위험과 이익을 거래/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식과 건강한 삶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Bridge(2018), 지리학의 관점에서 "**전환(transition)**은 **방향의 제시**만이 아니라 **의존의 해체**를 의미"



감사합니다

환경대학원 박사수료생 김우창
wcvictory920@snu.ac.kr